발간등록번호 76-9010028-000005-10

미래를 여는 도서관, 가고 싶은 도서관

해돋이

2016년 제29집

해돋이

2016년 제29집

CONTENTS

04 **발간사**

06 **특별기고**

아이와 소통하는 동화책 읽기의 즐거움 • 이지훈(「거짓말 경연대회」 저자)

10 **강연마당**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 • 강윤중(경향신문 사진기자)

16 **독서회 마당**

지워지지 않을 우리 민족의 상처 • 손혜령(한알독서회) 16

상처도 소중하다 • 전수빈(글밭독서회) 18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고 • 우지민(한울림독서회) 20

삶에 대한 구원과 찬미 • 김정경(한마음독서회) 22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읽고 • 이강주(넝쿨독서회) 24

28 **참여 마당**

아이와 어른을 따뜻하게 감싸는 공간 • 강소연(유아자료실 이용자) 28

우리 가족에게 참 좋은 곳, 창원도서관 • 원효정(어린이자료실 이용자) 31

꿈과 그 실행에 대한 소고(小考) • 노태영(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 33

길 위의 인문학 참가기 • 노하영, 오선명(참여자) 38

2016. 경남독서한마당 수상 후기 • 강어진(북 트레일러 부문 수상자) 40

뜰아래 사생대회 수상작 42

북페이스 사진 응모작 43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44

창원도서관 개관 기념일 축하 글 46

50 **직원 마당**

그림책이 좋아요 • 김재수(멀티미디어실) 50

잊어버린 가례 • 최중현(운영지원과) 52

도서관에서 길을 찾다 • 김현조(평생학습과) 54

천천히 빠르게, 늘 배우며 성장하기 • 손도윤(문헌정보과 자료봉사) 56

멈춘 듯이 걷는 창원도서관 • 김은경(신규사서 실무과정 연습생) 58

발간사

반갑습니다.

올해도 우리 도서관과 함께해주신 분들의 아름다운 글이 해돋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돋이는 단순한 문예지가 아닌,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도서관 직원들의 노력과 도서관을 꾸준히 이용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용자분들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기록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다 함께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적의 자료 확충, 특색 있는 독서진흥 행사와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체계적인 학교 도서관 지원으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서관이 걸어온 발자국을 되돌아보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고, 또다시 내년의 힘찬 시작을 다짐하게 됩니다.

늘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창원도서관과 함께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문화와 정보의 보물창고로서 그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16년 12월

창원도서관 유 정 희

특별 기고

아이와 소통하는 동화책 읽기의 즐거움

이지훈 / 「거짓말 경연대회」 저자

아이와 소통하는 동화책 읽기의 즐거움

● 이지훈 / 「거짓말 경연대회」 저자

얼마 전, 친구가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초등학생인 딸에게 책 읽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다.

나는 동화책을 권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딸이 읽을 책이 아니라, 내가 읽을 책을 추천해줘."

라고 말했다.

그래서 다시 진지하게 동화책을 권해주었다. 내가 동화책을 쓰는 작가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부모가 동화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장황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며칠 후, 그 친구는 내가 쓴 동화책을 구입해서 인증샷을 찍어 보내왔다. 어쩌면 그 친구는 내가 쓴 책을 사달라는 뜻으로 조금 오해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왕 구입했으니 꼭 한 번쯤 읽어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사실 많은 어른들이 동화책을 읽지 않는다.

도서관에 가면 엄마와 아이가 함께 책 읽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만, 동화책은 대개 아이들만 읽는다. 함께 온 엄마들은 소설책이나 교양서적을 주로 읽는다. 그런 걸 보면 동화책을 쓰는 작가로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아마 우리 무의식 속에 동화책은 아이들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리라.

또 한편으로는 동화책이라 하면 어딘지 유치하며, 어린이들이나 읽는 수준이 낮은 문학으로 취급하는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대개 이런 어른들은 아동문학을 권선징악이나 근면 성실 등을 가르치는 교육적 자료로만 이용하려고 한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동문학은 엄연히 문학이다. 단순한 교육 이상의 가치가 존재한다.

실제로 동화책을 진지하게 읽어본 어른들은 아이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어른들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또 놀란다.

우리에게 '모모'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작가, 미하엘 엔데가 쓴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다룬 내용이다.

주인공 렝켄은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을 이용해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를 난쟁이로 만들어버린다. 렝켄은 자신보다 작아진 부모를 보면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실컷 누리며 지낸다. 부모는 렝켄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점점 작아져서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기도 한다. 그 와중에도 렝켄은 자유를 즐기고, 부모는 이웃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을 쓰는 허세를 보인다.

물론, 이런 상황이 그리 오래 지속되진 않는다. 렝켄은 결국 부모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다.

하지만 뭔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서라기보다는, 작아진 부모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크게 교육적이지도 않은 이 동화책이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 한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으로 첫손가락에 꼽힐 정도였다. 부모의 억압에서 벗어난 렝켄을 보며 아이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물론, 이 책이 어린이에게 던지는 교육적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어른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풀어야 할 숙제를 남긴다. 이는 아이들이 읽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즉, 아동문학이지만 아이와 어른에게 던지는 각각의 다른 메시지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나 역시 글을 쓰면서 '이런 부분은 꼭 어른들이 읽어주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나는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 있곤 한다. 하지만 그런 바람도 어른이 읽지 않으면 메아리가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다.

소통의 시대, 단절된 부모와 자식.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감한다. 심지어 연예인들이나 정치가조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대중에게 공개하고 소통한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은 상대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모는 자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졌다. 자식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 만큼 부모들은 점점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짧은 시간에 최대한 눌러 담게 된다. 그건 결국 아이들의 귀에 '잔소리'로 들린다.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더욱 거리를 두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이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은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 동화책은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준다. 자녀가 읽은 동화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정서를 공유하고,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같은 책을 읽어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서적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물론, 동화책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의견을 주고받는다면 금상첨화다. 간단한 예로, 아이가 좋아하는 장면이 무엇인지, 무엇을 느꼈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백 마디 대화보다 아이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한다.

울타리를 벗어나 아이의 마당으로.

동화책을 읽다 보면 어른일지라도 문득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잃어버렸던 동심이 수면 위로 생생하게 떠오르는 순간, 어른들은 어린 시절의 나와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운 경험이 되겠지만, 자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도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다. 어른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아이의 마당에 뛰어들어 그 정서에 공감하며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대화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소통을 부르짖지만 정작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시대.

어느 날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아이가 읽는 동화책을 한 번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 그 책에 나의 어린 시절과 내 아이의 이야기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아마 곧 동화책 읽기의 즐거움에 중독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나아가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아이가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강연 마당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

강윤중 / 경향신문 사진기자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

● 강윤중 / 경향신문 사진기자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에는 우리 사회 다양한 약자들이자 우리 이웃의 목소리가 있고 한편 이 시대를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진기자의 발언도 있다. 다가가기 위해 조심스러워하고 주저하고 우유부단한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살면서 장애인 등 우리 사회약자에 대해 '안다' '이해한다'고 생각했고 편견이 그다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다. 잘 알고 있다 생각한 장애인에 대한 나의 첫 다큐(2002년)를 하면서 내 안의 편견을 바라보게 됐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을 곳곳에서 발견했다. 이후 사람을 대하면서 편견이나 선입견은 없어야 하는 직업인이 기자여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생겼던 것 같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부류의 목소리를 듣고 독자에게 전하려 했다. 카메라를 들고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보고 많은 얘기를 들었다. 언론에 대한 거대한 거부감과 벽을 느끼기도 했다. 또 나의 편견이 곳곳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느꼈다. 편견 등으로 누군가의 삶에 대해 참 쉽게 말하며 살고 있다는 반성을 했던 것 같다. 이 책은 내 편견을 인정하는데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편견을 확인하러 떠난 사람여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여정을 담았다.

또 하나, 이 책은 나의 질문이다. 사진기자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사진을 찍을 것인가. 무엇을 바꿀 수 있나 하는 고민의 흔적이다. 앞서 말했듯 이 책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읽힐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사진기자의 일이란, 또 사진기자의 고민에 대한 것이며, 동시대 우리 사회약자의 삶과 목소리를 읽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이웃의 삶 들여다보기

책에 실은 16개 꼭지 하나하나 자식 같은 사진이며, 만난 사람들은 소중한 인연들이다. 기자로 살며 지난 시간 내가 배우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를 자라게 했던 삶들이고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더 강한 기억과 추억에 잠기게 하는 만남이었다.

1) 연탄을 따라 나서다

태백 장성광업소 철암탄광 갱도 사진이다. 소위 '막장'이다. 갱도의 끝이다. 석탄공사에 애원해 들어가 볼 수 있었다. 기자라서 가능한 막장 출입이다. 수직 1km 해수면보다 더 깊은 곳. 한겨울에 30도, 습도 98%. 마스크는 줄줄 흘러내리고 호흡기로 들어오는 탄가루. 굉음. 열악했다. 갱도 입구에서 조금 걸어 들어간 지점. 막장까지 내려갔다온 뒤 교대시간을 기다려 나름 그림이다 싶어 셔터를 눌렀다가 욕을 먹었다. 그간 기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줬던 걸까. 아이들이 아빠 직업란에 광부라고 쓰지 못한다고 했다. 먹고살게 하는 기반, 즉 삶의 부정이요 아빠에 대한 부정이다. 기자의 존재가 강하게 거부되는 곳이 탄광이라는 곳이다. 석탄공사 관계자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요했을 때 애써 무시했고 일이 순조롭다 싶더니... 충격이었다. 찜찜한 마음에 막장에서 만난 광부와 관리자인 부장과 소주 한잔. 밤에 비계 두툼한 돼지 고깃집에서 욕했던 광부를 우연히 만나 사과하고 화해했다. 짧았지만 교감과 공감은 '욕'에서 '건배'로의 비약을 불렀다.

2) 이태원 이슬람중앙성원

이슬람교는 세계최대 종교이지만 국내에서는 소수 종교다. IS테러, 김선일씨 피살, 이라크 파병 등 중동 관련 뉴스, 이슬람 관련 뉴스에 언론이 찾아가기도 했던 곳이 이태원 이슬람성원이다. 이 건물은 69년 박정희 정부가 땅을 희사하고 사우디 등 이슬람 국가에서 돈을 내 76년에 개원했다. 계단에 놓인 신발을 보면 외교관, 노동자 등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

내 편견을 건드린 인상적인 말이 있다. “서구의 범죄는 기독교와 가톨릭과 연결시키지 않으면서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중동 지역의 범죄는 쉽게 이슬람과 이어버린다” “테러와 같은 범죄 행위는 코란의 가르침과 이슬람 가치에 반하는 것이며, 알라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이슬람 교인도 늘어나고 있다. 다양성이란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데 특히 종교에 대해, 이슬람에 대해 많이 배타적인 것 같다.

3) 한국 속 난민

마마두는 코트디부아르 난민이다. 생물교사였고 반정부 시위를 조직한 전력으로 목숨에 위협을 느꼈다. 한국 와서 만난 아내와 결혼해 이자크와 동생 두 아이를 키운다. 아들 이자크와 또래 흑인 아이들을 주말 학교 등에 데리고 가고 데려오며 신뢰를 얻었다. 아이들의 얘기를 들었다. 아이들은 스스로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마두씨의 가족을 섭외하기 위해 활동가의 생활실태 조사에 따라갔다. 가족사진을 찍어줬고 다음에 혼자 찾아갈 때 사진을 전해줬다. 우겨 찍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기 싫었다. 상처 줄 수 있는 것이다. 조카 장난감도 가져다주며 마지막으로 찾던 날, 마마두의 부인이 수줍게 기념사진을 부탁했다.

기념사진을 찍어주면서 함께 찍었던 사진을 신문 메인사진으로 썼다. 전통 복장으로 갈아입고 포즈. 다른 색 옷으로 한 번 더 갈아입고 찍어. 사진을 뽑아 액자에 넣어 선물했다. 난민 지위는 얻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 자격을 얻은 상태의 난민가족이다. 언론에, 또 사진에 노출되기 쉽지 않은 사람이며 정치적 난민이라 위험할 수도 있다. 얼굴은 아웃포커스 시켰다. 사진을 선물하며 고맙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사진을 준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물어야 했다.

4) 갈바리 호스피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호스피스를 찾았다.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하나, 가장 고민이 많았던 취재였다. 죽음을 앞두었지만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존엄한 죽음을 물을 수 없었다. 사진이 존엄한 죽음을 전달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삶과 죽음에 대해 찐하게 진지하게 고민했던 곳이었다. 50년 함께 산 노부부도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병실 밖에서 한숨짓다가 들어가 할머니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대화했다. 할머니는 말이 되어 나오지 않는 쇳소리로 계속 얘기했고 할아버지는 눈을 맞추고 가만히 들었다. 서로의 목소리와 눈빛을 기억하려는 이별 의식으로 보였다. 카메라 뒤에서 울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분명한 건 우리의 삶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게 했다.

5)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사진적으로 예쁘게 볼 수 있는 사진이다. 아직 이런 데가 있나 하고 마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힘겨운 삶과 그렇게 흘러온 삶의 궤적을 보는 이는 드물다.

끊어질 듯 이어진 길에서 위안을 받았다. 내 속의 근원적인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이다. 질주하는 시대에 느린 걸음 혹은 멈춤의 정서를 품은 곳이다. 가난한 삶에 정은 남았다. 사진 취미를 가진 자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로 오가며 기웃기웃 무례한 사진 찍기와 괴롭히기를 한다. 불쑥 방안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 삶들이 어떻게 여기서 정착했는지 그 신산한 삶의 여정에 관심보다 희한한 골목길, 낡은 집들, 흙담에 관심을 보이고 사람들도 그저 촬영 대상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삶에 좀 더 다가가 보려고 했다.

6) 아이들의 빈방

기자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진과 영상과 글들을 생산했다. 무엇을 바꿨나. 난 뭘

했는가 질문을 던졌고 무기력을 느꼈다. 나의 다큐 취재 차례가 돌아왔다. 오랜 고민 끝에 아이들의 방을 떠올렸고 쉽지 않은 섭외 과정을 통해 아니 오히려 너무 조심스러운 섭외 과정을 통해 세 아이의 빈방을 찍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방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던 공간이다. 공부도 하고 딴청을 부리며 공상에 빠지기도 했을 그런 공간이다. 부재를 통해 희생된 아이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다. 사람이 없는 사진은 신문사진에서 금기시된다. 하지만 '없지만 있는 아이들' 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보여주기는 사진기자의 의무다. 기록이며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기레기라 불린 자의 반성이기도 했고 사회를 바꾸지 못한 기성세대로서의 반성이기도 했다. 이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우리는 망각했다. 세월호는 나의 일일 수 있다. 운 좋게 피해가고 있는 것.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 노력은 우리 시대 부조리와 부패와 이에 대한 망각에 도전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도약하게 할 시험이기도 하다.

하나하나의 다큐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복잡한 감정이 따라 붙었다. 답답함과 미안함이다. 나는 이들을 이용해 지면을 메운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내게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나는 내 진정성을 보였나.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기자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고 들어갔을 때 많은 것을 보여주려 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에 후련해하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묻혀 있는 약자, 소수자, 가려진 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기자의 의무이며 존재 이유라 생각한다. 더불어 사람을 세상의 중심으로 옮겨가도록 하는데 미력이나마 보태는 것이 나의 일이라 생각한다.

독서회 마당

지워지지 않을 우리 민족의 상처 • 손혜령 / 한알독서회

상처도 소중하다 • 전수빈 / 글밭독서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을 읽고 • 우지민 / 한울림독서회

삶에 대한 구원과 찬미 • 김정경 / 한마음독서회

'리스본행 야간열차' 를 읽고 • 이강주 / 넝쿨독서회

지워지지 않을 우리 민족의 상처

'김구 · 전태일 · 박종철이 들려주는 현대사 이야기'를 읽고

● 손혜령 / 한알독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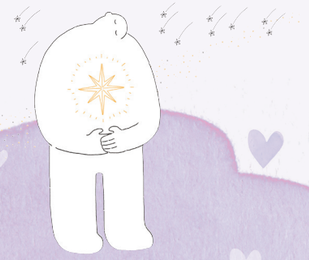
5학년에 들어서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역사 파트 중 현대사를 공부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하지만 이 책은 김구 전태일 박종철로 이어지는 현대사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서 안내해 주었다. 그 중에서 지금은 분단국이 된 현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한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해 12월 모스크바 삼국회의에서 미국, 소련, 영국 등이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결정하였다. 신탁통치는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를 대신 다스려주는 통치방법이다. 우리를 힘없고 형편없는 나라로 생각했던 까닭이다. 국민들과 김구는 다시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승만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통해 좌 우파의 사이를 나빠지게 해서 권력을 키우려는 방법을 이용했다.

김일성은 단지 자신의 권력을 키워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등 우리나라는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서 갈등을 겪었다.

일본에 나라를 팔고 권력을 얻어 살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신탁통치를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탁통치 3년 후 미국과 소련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UN(국제연합)에 넘겼다. UN(국제연합)에서는 남북한 동시선거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이 위험하다고 느낀 김일성은 UN(국제연합)에서 한국에 감시단을 보낸다는 말에 남북한 동시선거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은 단독으로 선거를 실시했다. 그 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광복 이후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이어진 끝에 결국 두 개의 나라로 나뉘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남북한의 대립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에 침입하는 남침이 일어났다. 한평생 민족의 단결과 부흥을 위해 애써온 김구 선생도 죽음을 당하셨다. 북한의 우파는 남쪽으로 남쪽의 좌파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일이 계속되었고 38선 근방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남한 북한 모두 화해보다는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 북한은 먼저 서울을 노려 점령해버리고 낙동강까지 국군을 몰아붙여 무력통일은 거의 달성하는 듯했지만, 미국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회복하였다. 38선을 중심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시간만 지나가자 서로의 땅을 빼앗고 빼앗기는 등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입었다. 1953년 7월 27일에는 드디어 휴전이 이루어진 뒤 분단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생겨났다. 한민족 의식이 없어지고 서로 적으로 생각하게 됐을뿐더러,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지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여러 사람 때문에 평화통일을 외치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금부터라도 남북한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면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현대사의 아픔도 많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상처도 소중하다

'모두 깜언'을 읽고

● 전수빈 / 글밭독서회

사람들은 '가장 좋다'는 말을 할 때 주로 단어 앞에 '인생'이라는 말을 붙인다. 그들의 언어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책은 나에게 '인생 책'이다. 내가 14살이 될 때까지 읽었던 책 중 가장 감명 깊은 책이다. 사실 이 책에서 가장 나에게 와 닿았던 점은 등장인물 모두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사람과 사람을 맺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준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만한 약이 없는 것 같다.

이 책의 주인공 유정이는 강화도에 사는 여중생이다. 유정이는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도 집을 나가셨다. 그래서 할머니와 작은 아빠와 같이 산다. 유정이가 어렸을 땐 작은 아빠도 혼자였지만 유정이가 크면서 작은 아빠는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한다. 유정이는 처음에 작은 아빠를 빼앗긴다는 것이 싫었지만 나중엔 작은 엄마를 엄마처럼 여기며 잘 지낸다. 유정이와 작은 엄마는 갈등을 잘 해결했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작은 엄마와 아들이었다. 유정이의 두 사촌동생 중 형인 용민이는 자신의 엄마가 좋지만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엄마를 창피하게 여긴다.

사실 나도 용민이의 행동이 이해된다. 어린 나이에 자신은 그저 베트남 사람인 엄마를 두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놀림을 받았으니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이다. 용민이도 자신의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다. 사실 엄마를 부끄러워하게 만든 것은 용민이의 마음가짐이 아닌 우리다. 우리는 다문화 교육 등을 받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적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지만 실천을 하지 못한다. 다른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과 동등하게 대해줘야 한다.

작은 엄마의 사촌 동생은 사촌 언니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한국에 온다. 하지만 사촌 동생은 사기결혼을 당했다. 다행히도 사촌 동생은 작은 엄마와 유정이의 보살핌으로 안정을 찾아 국적을 얻어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국적 취득이 힘들어 쉼터에 있다가 베트남으로 돌아간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사람으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유정이 친구들 중엔 우주와 광수라는 아이가 있다. 광수는 유정이처럼 시골 아이로 아빠와 할머니와 산다. 우주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다. 유정이는 광수는 싫어하고 우주는 좋아한다. 하지만 우주는 자신과 다른 급의 아이라 여기고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난 후 우주도 유정이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고, 처음엔 친구로 만나던 게 나중에는 이성 친구가 된다. 사실 우리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라면 보통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한다.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도 그랬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우주도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사는 아이가 아니었다. 우주는 대체 에너지나 환경에 관한 연구원이 되고 싶어 하지만 우주의 엄마는 의사가 되라고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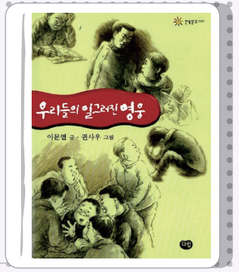
"환경 연구원은 쓸데없는 직업이니 꿈도 꾸지 말라고……."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사는 것 같은 우주지만 알고 보면 우주도 상처가 있었다. 사람 속은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다.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갖고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치유해 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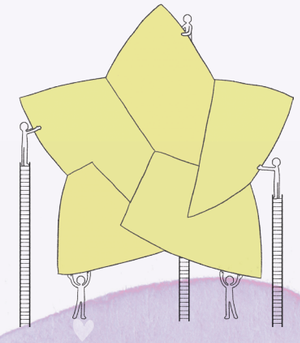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고

● 우지민 / 한울림독서회



한울림 독서회의 6월 선정도서로 정말 유명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게 되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이문열 작가님의 작품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였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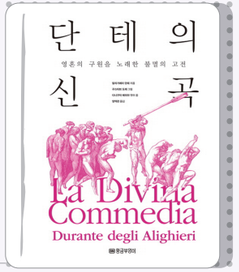
예전에 선생님께서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특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책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말 반영을 잘 하였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나는 이 책에서 엄석대 앞에서는 꼼짝 못 하던 아이들이 엄석대보다 강하다고 생각되는 선생님이 나타나자 그제야 엄석대에게 비난을 퍼붓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태가 저항하려고 했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엄석대가 불리해지자 태도를 바꾸는 아이들의 모습에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한순간에 바뀐 아이들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나도 저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냥 비난을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엄석대가 떠난 후에 반은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하고 오후 자치회에서 서너 시간 동안 입씨름을 하거나 급장이나 부급장이 건의함으로 밀고되는 대단하지도 않은 잘못으로 인해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치워져도 선생님께서는 충고 한 마디도 일절 해주시지 않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강제성이 전혀 없이 자율적으로 학급의 규율을 정하고 토의를 하고 표결을 하는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반을 이끌어나간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한 학기 후에 반 아이들은 질서와 자유를 확립하게 된다. 반 아이들이 혼란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 질서를 마침내 세우게 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예전에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것을 떠올리게 했다. 우리 사회에 엄석대와 같은 이가 나타나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박탈당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부조리에 대항해야 할 것이다. 이 소설을 통해 나는 나의 행동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엄석대와 같은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영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삶에 대한 구원과 찬미

'단테의 신곡'을 읽고

● 김정경 / 한마음독서회



우리 인생길 반 고비에
올바른 길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처했네.

아! 이 거친 숲이 얼마나 가혹하며 완강했는지
얼마나 말하기 힘든 일인가!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새로 솟는다.

죽음도 그보다는 덜 쓸 테지만 거기서 찾았던 '선'을 다루기 위해 거기서 보아둔 다른 것들도 말하려 한다. 단테 알레기에리의 신곡 1편 지옥은 이렇게 시작된다.

신곡은 단테가 정치적인 압박으로 망명과 유랑을 계속하며 타향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대략 15년에 걸쳐서 쓴 책이다.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신중하고 균형감 있게 이 책을 썼으리라 후대의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예측을 한다.

이 책은 3편의 칸티카 -인페르노(지옥편), 푸르가토리오(연옥편), 페르디소(천국편)-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칸티카는 3연체의 운율을 갖춘 33칸토(곡)로 이루어졌다. 서곡을 더하여 100곡의 칸토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숫자의 균형은 지옥, 연옥, 천국을 순례하는 단테의 여행 일정이 된다.

즉, 삶의 중반에서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 지쳐 길을 잃고 어두운 숲에 들어선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으며, 죄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지옥을 여행하고 루시퍼(사탄)가 거주하는 동굴바닥에 도착한다. 연옥은 죗값을 치르고 속죄하는 곳, 그리하여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마지막으로 베아트리체와 함께 하늘을 통해 위로 오르는데 이곳은 구원을 의미하는 천국이다.

한마음 독서회에서는 읽기에도 벅차고 난해한 이 책을 3월19일부터 4월16일에 걸쳐 3번의 릴레이 토론으로 단테의 여정을 따라갔다. 우리는 지옥, 연옥, 천국의 구조도를 그려놓고 윤리, 종교, 철학 그리고 천체를 얘기했다. 100곡의 서사시를 읽으며 역사와 번역과 단테의 삶을 얘기했다.

사실 신곡은 상상력에 의해 지옥, 연옥, 천국의 광경이 시로써 묘사되었지만, 실제 인간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테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진리의 핵심이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신곡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다의적이다. 직접 표현되지는 않으나 반드시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고대 역사나 당시의 역사로부터 데려온 인물들을 통해 단테는 도덕적 논쟁을 의도했을지도 모르겠다. 용기였을까? 타당한 옹호나 분노였을까?

나는 진실과 역사의 흐름에 용기내지 않는다면, 비루한 시대가 오게 될까봐 막막한 심정으로 창밖을 넘어다보았다.

걱정도 잠시, 어쩌면 지옥, 연옥, 천국의 순례는 인간의 발전(구원)을 나타내는 알레고리일 것이라는 추측을 감히 해본다. 베르길리우스를 통해 인간의 이성을, 베아트리체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상징하고 있으니, 결국 신곡은 '구원'이고 '찬미'이다!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와 일치되는 권위를 통해서 네 사랑의 으뜸이 하느님께 향하고 있다.(천국편 26곡)

p.s : 나이가 들었나보다. 한때 의무처럼 지겹게 건성으로 읽었던 이 책을 인생길 반 고비에 길을 잃고 매여 다시 들었다. 네이버 포털을 두들겨가며 온 정신으로 읽었다. 3회의 릴레이 토론에서의 열정들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극명하게 고전의 진수를 맛본 시간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방대하고 위대한 책을 감히 말한다는 것은 정말 버겁고 건방진 일이었다. 지옥과 연옥의 곡을 넘을 때마다, 심지어 천국을 오르는 순간에도 나는 기진맥진했고 힘겨웠다. 삶이 이렇게도 무거운가?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읽고

● 이강주 / 넝쿨독서회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J. P. Sartre)의 명언이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내가 내린 선택들의 총합이다. 하지만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주체적인 삶이라 속단할 순 없다. 때때로 내 의지와 무관한 혹은 이에 반하는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시대적 요구, 성장 배경, 가족의 기대 그리고 무수히 많은 우연들이 가하는 압력 때문이다.

지금은 엄연한 사실이 된 현재의 나는 한 때 가능성으로만 존재한 나의 일부였다. 우리가 A를 선택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순간, 내 안의 B는 나의 삶에서 사라진다.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된 A보다 사라진 B가 훨씬 더 크다. 그렇다면 확률인 채로 영영 잃어진 나의 미래들은, 달라질 수 있었던 내 삶의 다른 가능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다른 삶에 대한 상상과 열망'이라는 테마를 다룬다. 타인의 삶을 추적하는 액자 밖의 인물 '그레고리우스'와, 그의 여정을 통해 삶의 윤곽이 드러나는 액자 속 인물 '아마데우 프라두'

그레고리우스는 스위스 베른의 어느 대학에서 고전어와 문학을 강의하는 교수다. 지루할 만큼 평온한 일상을 살던 그는 어느 날 돌연 일상에서 낯선 세계로 눈을 돌린다. 우연히 손에 넣은 포르투갈 작가 아마데우 프라두의 『언어의 연금술사』를 들고서 일정도, 기한도 정하지 않고 리스본행 야간열차에 몸을 싣고 『언어의 연금술사』를 읽기 시작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프라두가 던지는 질문은 그레고리우스의 내면에 고요한 파동을 일으킨다.

그레고리우스는 의사이자 시인이었던 프라두의 흔적을 쫓는다. 푸라두는 살라자르 독재 정권 치하의 하수인이었던 맹지스의 목숨을 구한 일로 오점을 남기고 반정부 저항단체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성실함과 충성, 우정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으나 절친한 친구 조르지의 연인을 사랑하게 되어 몹시 고통스러워했던 인물이다. 그레고리우스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프라두의 인생을 조합해 나가면서 프라두라는 인물에 자신을 비춰보게 된다. 40년 가까이 한 자리에 서 있던 자신을.....

존경받는 의사이자 은유에 능한 시인이며 고귀한 정신의 귀족이자 저항운동가였고 격정적인 사랑에 몸부림쳤던 프라두. 작가는 프라두의 주변에 다양한 인물들을 배치한다. 경직된 인생을 살았던 아버지, 병적인 충성심으로 오빠 곁을 지켰던 아드리아나, 발끝으로 걷는 듯 자기 길을 간 멜로디, 프라두와 극명하게 대비되었던 친구 조르지. 그러나 이들은 모두 프라두의 페르소나다. 그레고리우스는 프라두가 구축해 놓은 사유의 제국을 여행하면서 자신이 간과한 인생의 다른 측면을 바라본다.

지인들이 기억하는 프라두는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미화되거나 굴절된 그의 잔상이었다. 여동생 아드리아나에게 그는 생명의 은인이자 숭배의 대상이었고, 아버지에게는 두려울 만큼 총명하고 정직한 아들이었으며, 에스테파니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허기를 지닌 인간, 그래서 사랑해도 함께 할 수 없는 남자'였다. 그는 불경한 사제, 유능하고 친절한 의사, 민족의 배신자, 찬란한

우월함으로 본의 아니게 타인을 주눅 들게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했다. 아마데우 프라두라는 한 명의 인간은 무수한 갈래로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었다.

그레고리우스에 의해 퍼즐이 맞추어진 아마데우 프라두는 '누구보다 자의식이 강했던, 실존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러나 끝내 타인의 기대와 억압을 뿌리치지 못했던, 강직하지만 섬세하고 총명하지만 나약한 사람' 이었다.

그레고리우스와 프라두는 시대를 다르게 태어난 쌍둥이 같은 존재로 보인다. 그레고리우스가 프라두에게 느끼는 동질감은 아름답고 완벽한 언어에 대한 집착, 스스로 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삶에 대한 회한, 만들어진 자화상에 대한 자각,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삶에 대한 열망이 그것이다.

작가는 아마데우의 삶과 글, 그리고 그레고리우스의 독백을 통해 '인간의 실존' 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인간행위의 표면 아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아니면 인간은 자신이 만천하에 드러내는 행동과 완벽하게 일치할까? 지금의 나도 그저 우연의 산물일 뿐이 아닌가? 영혼은 사실이 있는 장소인가, 아니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이야기의 거짓 그림자에 불과한가?

인간의 삶은 결국 우연의 산물이며 현재의 자신은 과거의 가능성일 뿐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나의 본질과 얼마나 일치할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 삶의 다른 가능성들은 무엇일까? 나 일수도 있었던, 내가 영영 잃어버린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영원히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잃어진 나' 를 잊기 위해, '잃어진 나' 를 알기 위해, '잃어진 나' 를 되찾기 위해 운명과 싸워나갈 뿐이다. 그레고리우스와 아마데우 프라두가 그랬던 것처럼.

참여마당

아이와 어른을 따뜻하게 감싸는 공간 • 강소연 / 유아자료실 이용자

우리 가족에게 참 좋은 곳, 창원도서관 • 원효정 / 어린이자료실 이용자

꿈과 그 실행에 대한 소고(小考) • 노태영 /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

길 위의 인문학 참가기 • 노하영(경원중), 오선명(경원중) / 참여자

2016. 경남독서한마당 수상 후기 • 강어진(구암여중) / 북트레일러부문 대상

뜰아래 사생대회 수상작

북페이스 사진 응모작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창원도서관 개관 기념일 축하 글

아이와 어른을 따뜻하게 감싸는 공간

● 강소연 / 유아자료실 이용자

수요일 오후면 나는 어김없이 어린 딸아이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오른다. <꼼지락 꼼지락 신나는 책놀이> 수업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창원도서관 책 읽는 타요 버스에서의 책읽기 수업인데 아이가 버스를 타고 가야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큼은 즐겁게 도서관을 간다. 버스에서 내려서 도서관까지 천천히 10분 정도 아이와 손을 잡고 걸어가다 보면 많은 대화가 오간다. 육아를 하며 매일같이 지친 상태에서 특별한 놀잇감으로 놀아줘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도서관으로 가는 길을 걷다 보니 아이와 놀기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내가 창원도서관 유아자료실과 인연을 맺은 지는 근 3년.

아이를 낳기 전에는 창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창원도서관과 인연을 맺었고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는 집 근처 도서관을 이용했다. 어려서부터 도서관과 친하게 지낸 아이는 분명 그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부지런히 다녔다. 그러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조용한 도서관에 갔다가 난감한 상황이라도 벌어질까봐 노심초사했고 도서관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들른 도서관.

햇빛이 잘 드는 1층에 유아자료실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배치를 했는데 무엇보다 어린이 자료실과 따로 분리가 되어있어서 훨씬 자유롭게 느껴졌다. 가지런히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서면 널찍한 방 안에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 있고 아이 손이 충분히 닿을 만큼 나지막한 책꽂이에 책이 가득 꽂혀 있다.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끈 것은 넓은 유리창에서 부서져 내리는 햇빛 샤워로 따뜻한 기운이 충만하다는 것이다.

반쯤 엎드려 읽기도 하고, 두 다리를 쭉 뻗고 또는 낮은 책상에 앉아 엄마들이 읽어주는 책에 빠져드는 아이들, 비치되어 있는 종이와 크레파스를 가져와서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는 아이들, 아무데나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책 구경을 하고 원하는 만큼 머물다 가는 곳이었다. 유아자료실은 품이 참 넓은 친정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원도서관, 그곳엔 책만 있는 곳도 아니고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도 아니었다. 지금은 어른이지만 그전엔 똑같이 아이였던 엄마 아빠들의 공간이기도 했다.

아이가 처음엔 그런 환경이 신선했는지 바닥에 철퍼덕 드러눕기도 하고, 이곳저곳 떠돌면서 날아다니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책들을 쑥쑥 뽑아들어 책을 읽어달라고 내 옆에 철퍽 앉는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온다. 도서관에서 느끼는 계절은 다 좋지만 특히 도서관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계절은 겨울이다. 추운 바람을 뚫고 들어오면 사서 선생님들의 밝은 인사와 따뜻한 방의 온도가 꽁꽁 얼었던 나를 녹여준다. 인디언 텐트도 있었는데 오전에 와서 마칠 때까지 머물다 간 적도 있었다. 책도 보다가 배가 고파지면 간식거리를 먹으러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텐트 안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책을 껴안고 둘이 까무룩 잠을 잘 정도로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자유를 줄 정도였다.

내가 도서관을 편하게 여기고 도서관을 즐기는 수준이 되니 아이도 엄마의 마음을 닮아 저절로 도서관을 즐기게 되는 것 같다.

도서관과 친밀하게 되니 아이가 보는 그림책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아이뿐만 아니라 나까지 성장함을 느낀다. 그림책이면 아이만 보는 책이라 여겼었는데 오히려 함축적인 내용이 한 권의 얇은 책에 적절히 들어있음에 감탄한다. 아름답고 섬세한 그림과 마음 따뜻한 이야기들과 어휘들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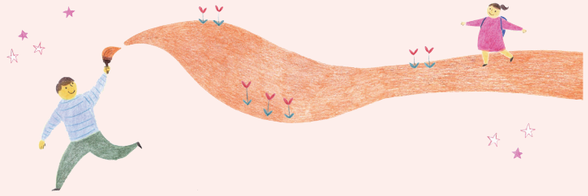
결국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중 <그림책 깊이 읽기>를 수강할 정도로 그림책에 더 흠뻑 빠지게 되었다.

수업 시간에 멜라니 와트의 <청소기에 갇힌 파리 한 마리>라는 책을 소개받고 자료실에서 찾아 아이와 읽었는데 심리학적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 짧은 한 권의 책에 녹여낼 수 있음에 감탄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자신이 경험한 슬픔과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재치 있고 발랄하면서 결코 슬프거나 아픈 이야기가 아니라 좋았던 책이다.

이런 신간들을 즉각적으로 구해서 볼 수 있고 달마다 주제가 있는 책들을 전시하는 것과 그림책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책 읽기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사서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것이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시니 그 또한 도서관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언젠가 엘리베이터 광고에서 보았던 빌게이츠의 명언이 떠오른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었다."



아이가 자라서 학교와 학원만 오가던 회색빛 거리와 스마트폰으로 채워진 일상이 아닌 도서관에서 엄마와 함께 책을 읽고 자고 놀았던 시간들이 아이의 내면 속에서 차곡히 채워졌으면 그래서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듯하다.

우리 가족에게 참 좋은 곳, 창원도서관

● 원효정 / 어린이자료실 이용자

우리 가족은 2015년 12월 마지막 주에 서울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큰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창원으로 전학을 왔고, 연년생인 둘째 아들은 어린이집을 마무리하고 정든 친구들, 이웃들과 헤어져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의 직장이동으로 오게 된 창원은 나에게는 친정이 있고 어린 시절을 보낸 익숙한 곳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늘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두고 교육 환경에 신경을 쓰던 우리 부부는 이삿짐이 정리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무렵부터는 지역사회 교육문화공간을 알아보고 체험해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흥미로워하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또 다채로운 곳, 늘 부담 없이 자주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 가족 모두가 주말과 휴일을 여가로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죠. 그러다가 우리 가족 모두가 만장일치로 정하게 된 교육 · 문화 공간이 '창원도서관'이었습니다.

창원도서관은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이용하던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창원도서관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독서하고 공부하기에 편안한 공간이었고, 좋은 학습 분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또 늘 친절하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사서선생님께서 함께 계셔서 아이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도서관에 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과 후와 휴일에 우리 가족은 부지런히 창원도서관에 왔습니다. 이렇게 2016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창원도서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공간이 가족이 누리기에 편안하고 즐거워서 함께 했던 것이었는데, 지난 일 년을 되돌아보니 창원도서관은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즐겁게 도서관을 왔던 두 아이는 새학기 2학년이 되고 1학년이 된 후 학교에서 다독상을 받아 행복해했습니다. 가족을 부지런히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도서관에서 토요일, 일요일 도서관과 함께 하면서 박사학위도 마무리 하였고 자격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지식과 교양을 쌓으면서 주부로서 여성으로서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도서관과 함께 하는 삶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늘 책과 함께 하는 삶으로 발전하여 가정에서도 독서가 생활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그 다음 도서관에 가기 전까지 읽게 되었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나 궁금증, 탐색은 또 다른 책 읽기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목록, 각자의 독서 이력을 통해 부모인 우리는 내 자녀의 흥미와 관심을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에서 부모의 공부하고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딸과 아들이 함께 성장해가고, 이제는 자녀가 책 읽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합니다.

창원도서관은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는 중요한 교육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창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 체험의 장, 교육 활동, 전시의 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실에서 빌려온 DVD로 가족 모두 영화와 다큐도 즐기고 외국어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와서는 마음껏 책도 보고 때로는 이곳에서 학교 숙제도 하고 과제물 준비도 합니다. 그러면서 흥미와 관심, 궁금한 사항들은 또다시 책을 읽으면서 해결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은 독서 후 휴식시간에는 도서관 옆 학교 공터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도 하고 종이비행기 날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창원도서관이 더욱 더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또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더 크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이용되길 바랍니다. 늘 창원도서관을 아끼고 사랑하며, 창원도서관과 함께 하여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는 성장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창원도서관, 정말 최고입니다!

꿈과 그 실행에 대한 소고(小考)

– 50대 후반 남성의 버킷리스트 –

● 노태영 /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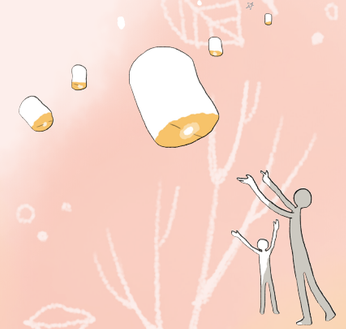
어릴 적 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였던 것 같다.
선생님, 판사, 변호사, 의사 등. 하지만 그 꿈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나와 같았다. 꿈은 말 그대로 꿈일 뿐인 것인가?

어떤 이는 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꿈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꿈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더글러스 에브렛-

또 내가 좋아하는 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나도 이렇게 꿈을 이루고 싶다.

[꿈은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된다.] -그래그-

이제 나는 나의 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꿈은 직업에 관련된 것이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꿈은,
직업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미처 하지 못 다한 꿈,
그리고 내가 실행하였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못 이룬 꿈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는 나 자신에게 30년 직장생활 뒤, 휴가를 주기로 하였고, 못 다한 꿈과 못 이룬 꿈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번 창원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못 다한 꿈, 그 첫 번째 자전거 여행.

자전거 여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집사람과
함께 자전거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느껴보는 삶에 대한 체험여행이다.
이 목표를 위하여 나는 몇 년 전부터 자전거 국토종주에 나섰다.
체력적으로는 힘이 들었지만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
혼자만의 자전거 여행은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세상을 향해 참아내는 인내심과 식었던 목표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해주었다.
그리고 또 노후에 우리가 살 만한 곳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 장소는 대형병원이 가까이 있고, 지하철이 들어오며, 적당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강가가 있는 곳이었다. 두발로 회전시키지 않으면, 멈추고 마는 자전거만이 알려줄 수 있는 하늘이 주신 장소이다. 타보지 않으면, 그 즐거움을 도저히 알 길이 없다.

노후의 건강은 자전거 여행을 하면 따라오는 선물이다. 지금은 가게일로 바쁜 집사람과 함께, 전국 아니 여러 나라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꿈을 열심히 꾼다.

못 다한 꿈, 그 두 번째 사진촬영

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 관련 서적을 읽다보면 사진이 좋으면 글귀가 좋지 않고 글귀가 좋으면 사진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다.

좋은 글귀와 멋있는 사진이 필요한 여행기인데도.

그래서 나는 자전거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진들을 찍었다.

하지만 목적지만을 위해서 빨리 내달리기만 하는 자전거 여행에서 찍은 사진은 화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사진 강좌에 등록하게 되었다.

강의와 깊어가는 가을의 야외수업을 통하여 발전하는 사진 작품을 바탕으로 나중에 자전거 여행기를 쓰고 싶다.

자전거 여행기에는 사진 및 여행소감문, 서예 등이 포함될 것이다.

해낼 수만 있다면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사진, 여행소감문, 서예. 너무도 멋진 조합 아닌가?

못 다한 꿈
그 세 번째, 서예

어렸을 때부터 글씨를 남들보다 못쓴 것 같지는 않다.

군대에서도 글 쓰는 군인(차트병)으로 뽑혀서, 부산군수사령부로 내려와 2년간 근무하다가 제대를 하였다.

그리고 제대 후에는 대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로 차트 쓰는 직업을 가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전통서예를 너무도 배우고 싶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배울 수가 없었다.

이제 이번 기회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힘 있는 서체를 제대로 배워서 언젠가는 공모전이나 휘호대회에 참가도 해보고, 앞에 서술한 여행기에 서예작품을 같이 넣어보고 싶다. 그 날이 너무 기다려진다.

서예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모든 잡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마력을 지녔지만 때론 빨리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편안함으로 시작하여 초조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못 다 이룬 꿈, 어학

지금 50대 후반이니 60대가 넘어 여건이 된다면 국내 유명 관광지에서 외국노인들과 거리낌 없이 역사나 문화에 대해 대화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

같은 눈높이로 가이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가시간 활용이 되고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나 중국어회화가 필수인데. 아직은 턱없이 역부족이다.

수십 년을 해왔어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제대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면 될 수 있다는 최면하에 신청한 영어와 중국어강좌... 목표가 있으니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다.

한국의 학교 수업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수업이다.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영어를 우선으로 다음엔 중국어 순으로 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말한 4가지의 꿈은,
어쩌면 모두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실행한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꿈을 이루기 위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어르신이나 전업주부들을 보면 실로 존경심이 생긴다. 나도 내 자신을 위하여 저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와 그 이후의 노후 생활 등.

이 선택은 나의 몫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던, 위의 4가지 꿈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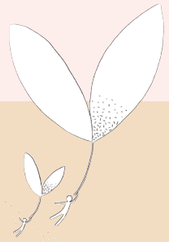
그 꿈의 실행이 나와 집사람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것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다는 생각과 이룰 수 있을까로 조바심 내는 내 자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싶다.

오늘밤도 현실과 꿈 사이에서 고민하느라
새벽잠을 설치겠지만 왠지 내년에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수강하고 싶어진다.

오늘따라 아침 일찍 나선 교회로 향하는 길.

바람이 매섭지만 기분은 상쾌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못 다 이룬 그 다섯 번째 꿈으로 신앙심 깊은 종교인이 왜 떠오를까?



길 위의 인문학 참가기

● 오선명(경원중) / 참여자

처음엔 '인문학'이라는 단어와 나의 길을 찾는 내용에 대한 강연이라 흥미가 생기지 않았는데 기대한 것보다 정말 재밌었다. 지금 우리 나이의 수준에서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사님께서 쉽게 설명해주셔서 인문학 강연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 인문학 강연을 듣기 전에 인문학 관련 책을 읽었는데 책에서 나온 그림, 그림을 그린 사람, 그림(작품)의 배경과도 강연의 내용은 관련 깊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아름다운 배경의 작품만이 환상적이고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연에서 소개된 작품은 달랐다. 전쟁이 막 끝난 후의 열악한 환경과 지저분한 옷을 입고 길에서 자고 먹고 지내는 사람들도 아름답고 눈부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또 이밖에 그림들이 말해주고 있는 건 신분계층인 듯 보였다.

입고 있는 옷, 서 있는 위치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표현하는 것은 옛날에도 지금 현실과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되었다. 이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내용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을 나타낸 표였다.

다른 나라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지, 즐기는 취미가 있는지로 중산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을 가는 횟수나 아파트 소유 여부,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가 그 기준이 되었다. 이렇듯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발전의 정도가 빨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표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어 씁쓸한 기분도 들었다.

길 위의 인문학 참가기

● 노하영(경원중) / 참여자

예전에 내가 읽었던 책 중엔 이런 말이 있었다. '인간다운 모든 것은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해야 한다.' 슬럼프 때문에 퇴보만을 바라봤던 나에게 이윤영 강사님의 강연은 퇴보의 길에서 뒤돌아 다시 전진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듯했다.

이윤영 강사님은 처음에 명언과 함께 인디고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명언, 격언과 책을 좋아하는 나에겐 처음부터 내 마음에 쏙 드는 강연이었다.

다른 분들은 중요한 걸 적으라거나 아예 필기에 대한 발언이 없는데 강사님은 '자신이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을 적으라며 우리는 단순히 아이가 아니라고 하신 것이 내 머릿속에 강하게 새겨져 아직도 강사님의 목소리가 귀에서 울린다.

이윤영 강사님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인상적이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하여 듣는 사람이 지겹지도, 딴청을 부리지도 않게 재치 있고 전달력 있는 강연을 해주셨다. 나도 크면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윤영 강사님의 말씀처럼 리더십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관대하지만 강단 있게 행동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나는 그 목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것이다.

2016. 경남독서한마당 북트레일러 부문 대상

2016. 경남독서한마당 수상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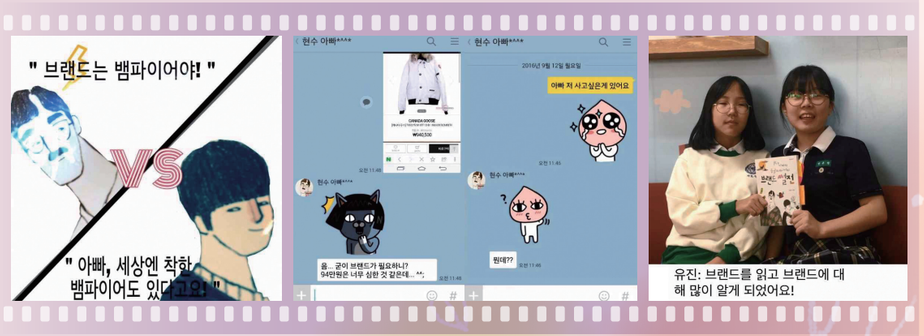
● **강어진**(구암여중) / 북 트레일러 부문 수상자

국어 시간에 독서 활동의 일환으로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그것이 교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국어 선생님께 '경남독서한마당 공모전'을 추천받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기에 서툴기만 한 영상이지만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뿌듯하고 기쁩니다. 꿈이 '방송작가'여서 수상의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독서 활동에서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밝은 분위기에서 영상을(대회를 생각하지 않고) 제작하여 그런지 솔직하고 쾌활한 작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북트레일러 영상 제작은 즐거웠지만 어려웠던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수와 현수아빠(브랜드 썰전 등장인물)가 메신저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현수의 심리와 성격을 표현해야 했던 점이나 영상을 편집할 때에 자막 넣기가 어려워서 끙끙대었던 게 기억납니다. 오히려 걱정이었던 더빙은 우려와 달리 친구들이 재치 있게 연기를 잘해주었고, 또 인터뷰 장면에서는 NG도 몇 번 나지 않고 원활하게 바로 통과되었습니다.

항상 교내대회와 독서 활동으로는 항상 독서감상문, 감상화가 주를 이루었는데, 북트레일러 영상이라는 새로운 부문에 도전하게 되어 색달랐고,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트레일러' 영상은 최대한 책의 절정과 결말을 말하지 않고 소개를 해야 했기에 아쉽게 못 담은 얘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영상이라서 글을 많이 담지 못해 책의 깊이를 다 담아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공모전에 응모를 하게 되면서 영상을 제작한 이후 책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등장인물인 현수와 현수아빠와도 친숙해진 느낌입니다.

부족한 실력임에도 2016. 경남독서한마당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얼떨떨하면서도 뿌듯합니다. 가볍게 시작했던 독서 활동에서 교내 대회 수상, 그리고 독서한마당 대회까지 수상하게 되어 힘들었던 독서 활동 과정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팀원들도 대상이라는 결과에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더 다가가 더 풍부한 북 트레일러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과분한 기회에 미흡한 작품으로 나가게 되었지만, 이 수상을 잊지 않고 책과의 교감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2016. 경남독서한마당 북트레일러 영상

뜰아래 사생대회 수상작

창원도서관
초등부 금상 김민후

바다도서관
초등부 은상 김은별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어요
초등부 은상 김하준

책속으로 풍덩!
초등부 은상 장진이

동화 속 친구들과 도서관으로 가요
초등부 동상 이윤영

책을 읽어주는 나
초등부 동상 장시온

꿈을 갖게 하는 도서관
초등부 동상 조혜은

바다 고래 도서관
초등부 동상 최혜인

가을 옷 입은 창원도서관
유치부 금상 손한나

나는 책이 좋아
유치부 은상 윤주원

즐거움이 가득한 도서관
유치부 동상 박선우

인어공주
유치부 동상 허세영

북페이스 사진 응모작

기발하고 재미있는
우리도서관 이용자들의
북페이스 사진을
소개합니다~!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덕혜옹주’를 읽고

● 김용진 / 참여자

덕혜옹주님께

안녕하세요, 옹주님.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옹주님의 일생을 쓴 책 ‘덕혜옹주’를 읽었어요. 저는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어요.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의 죽음, 일제의 탄압, 조금 지나선 유일한 기댈 곳이었던 어머니의 죽음까지. 옹주님이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로 태어나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시고 일본에서 받은 냉대와 감금생활, 일본인과의 강제결혼까지 이 모든 것을 겪으시다 결국 정신병을 얻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와중에도 옹주님이 버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삶에 터전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옹주님에 비하면 고국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참! 요즘에 옹주님을 주제로 한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의 내용은 사실과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옹주님의 나라사랑은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영화 덕에 옹주님의 일생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다행이에요. 옹주님이 가르쳐주신 나라사랑 덕분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히 잠들 수 있게 기도할게요.

2016. 10. 30.

김용진 올림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창밖의 아이들’을 읽고

● 김도현 / 참여자

안녕 란이야.

매일 집안에 틀어박혀 텔레비전만 보는 아버지와 갈빗집에서 불판 닦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어린 너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어.

평소에 나는 평범함에 감사할 줄 몰랐지만 누군가에겐 그 평범함이 간절한 바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또 명품옷과 명품아파트에 사는 클레어와 그곳에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너, 그리고 경비원의 전화를 받아 달려온 너의 아버지, 그 때 너의 기분을 완전히 공감하진 못하겠지만 읽으면서 많이 안쓰러웠어.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잘 자란 너는 나에게 많은 감동을 줬어. 고마워!

2016. 10. 30.

도현이가

창원도서관 개관 기념일 축하 글

● 박명선

창원도서관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큰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큰 딸은 이제 중3이 되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도서관 나들이 덕분인지 딸들은 책을 좋아합니다. 집과 도서관이 거리가 있다 보니 주말에만 도서관 나들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도서관 근처로 이사를 하려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창원이 좋은 이유 중 하나 창원도서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33년이란 시간동안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을 겁니다. 저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도서, DVD로 더 많은 사람들의 꿈과 행복을 응원해주세요.

창원도서관! 정말 최고입니다. 33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서관의 곳곳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최성주

와아! 벌써 33주년 개관 기념일이라니.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33주년이나 됐을진 몰랐는데.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자주 와서 책도 읽다가 먹을 것도 자판기에서 사먹고, 정말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읽고 싶었던 책도 얼마든지 있고 다른 재미있는 책들도 많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책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된 것도 창원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누구보다 고맙고 감사드리는 곳이랍니다. 제가 크고 어른이, 아니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 창원도서관 계속 이어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도서관을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행복한 세계 최고 짱짱 창원도서관! 꼭 모두 책에 대한 행복과 즐거움을 찾을 때까지 계속 운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원도서관 개관 기념일 축하 글

● 김선경

개관 3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우연히 큰 아이 어릴 때 알게 되어 신랑차가 없으면 올 엄두를 못 내지만 항상 주말이면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에게 '책 읽는 가족'을 선물해 주셨고, 우리 아이에게 '다독자'를 선물해 준 도서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을 주말마다 반겨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자녀를 낳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남아주세요. 다시 한 번 33주년 축하드립니다.

● 허두현

33주년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짝! 짝!

그동안 별생각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33주년이라는 소식에 놀라 이렇게 축하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집에선 TV보느라 뛰어다니며 놀기 바쁜 우리집 꼬맹이들이 여기만 오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면서 책을 부여잡고 열심히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달 매달 새로운 행사들과 미션들 그리고 체험들이 업그레이드되어 볼거리와 읽을거리에 재미까지 한 보따리 주시니 당연한 현상이겠지요. 책만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느끼고 생각할 기회도 풍부했답니다. 창원도서관에서 펼쳐지는 흥미로운 행사와 이벤트를 서울에 사는 동생에게 얼마 전 자랑했더니 엄청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어깨가 으쓱해졌겠지요? 재미와 감동을 선물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창원도서관 모든 식구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있으시고, 많은 행복을 배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개관 33주년을 축하드리고, 우리 가족도 더욱 열심히 도서관에 발도장 쾅쾅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도서관 개관 기념일 축하 글

● 공옥화

어느 날 도심 속에서 도서관을 만났다. 벚꽃 흐드러지게 피는 봄에는 소풍 오는 마음으로 설레며 오고 뜨거운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책 읽는 즐거움으로 오고. 이쁜 낙엽이 빨갛게 노랗게 시샘하듯 도서관을 앞다투어 물들일 때 당당하게 낙엽을 밟으며 입성하고.

조용히 차가운 바람이 불 때면 아궁이 불 옆을 찾듯이 포근한 도서관을 찾게 된다. 도심 속 쉼터 도서관을 찾게 된다. 서른세 번째 생일을 축하드려요. 꽃단장하지 않아도 마음 편히 와서 책을 즐기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 아기 때 손잡고 오던 내 딸아이가 여고 1년생이다. 미래의 꿈이 도서관 사서란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야무진 계획을 세우고 오늘도 도서관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쉿! 귀 기울여 보세요. 이곳에서 아이들의 꿈들이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꿈을, 미래를 만드는 곳이랍니다.

● 김미영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나와 창원도서관의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도서관의 나이가 33살이라니 오랜 역사가 쌓인 만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창원도서관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우리 딸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 배우고 싶은 수업을 즐겁게 듣고 있고 좋아하는 책을 서로 빌리고 재미있는 체험을 경험하며 친절한 사서 선생님에게 정보도 제공받으며 '창원도서관'과 함께 좋은 인연으로 100주년을 맞이하고 싶다. 누구보다 더 많이 축하드리며 사랑받는 우리 모두에게 "꿈"이라는 장소로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창원도서관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창원도서관 파이팅!"

직원 마당

그림책이 좋아요 • 김재수 / 멀티미디어실

잊어버린 가례 • 최중현 / 운영지원과

도서관에서 길을 찾다 • 김현조 / 평생학습과

천천히 빠르게, 늘 배우며 성장하기 • 손도윤 / 문헌정보과 자료봉사

멈춘 듯이 걷는 창원도서관 • 김은경 / 신규사서 실무과정 연습생

그림책이 좋아요

● 김재수 / 멀티미디어실

'그 어떤 경전이나 신비로운 지혜만큼이나 진리를 일깨워주고 보여주는 그림들! 한 장의 그림이 천 마디 말을 대신할 수 있다.'
어느 강의에서 들은 문구인데, 그림책에 대한 정의를 잘 표현한 글이라 생각한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나는 그림책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림책이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만 보는 책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 창원도서관에 와서 깨닫게 되었다.
우리도서관에는 한 달에 1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직원들이 모여서 그림책 작가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그림책이 좋아'라는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을 통해 무궁무진한 그림책의 세계와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그림책의 묘미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다.

예전에 내가 어릴 적에는 -주변에 책도 많이 없었지만- 동화책이나 위인전 같은 책들은 가끔씩 읽고 주로 소설책이나 만화책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그림책과 그림책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아이들의 정서 함양, 감각 및 두뇌 발달을 돕는 그림책뿐만 아니라 그림책의 크기나 색깔만큼 다양하고 재미있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 집에도 5살-2살짜리 꼬맹이가 두명 있는데,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 책을 읽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그림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애들한테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2살짜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는 딱 2권의 책만 가져오고, 5살짜리도 창작 동화책만 가지고 와서 읽어 달라고 한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자꾸 보려고 하고 흥미가 없는 책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동화책, 그림책이라도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주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것 같다.

앞으로 그림책을 좀 더 공부해서 언젠가 나도 기회가 된다면 작은 그림책 1권을 꼭 만들어 보고 싶다.

잊어버린 가례

● 최중현 / 운영지원과

가정의례란 가정에서 지내는 의례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를 사례라고도 한다.

어린이가 성인이 되어 제짝을 맞이하여 지내는 혼인식, 죽음을 맞이하여 지내는 상례식, 그리고 죽은 뒤 자손이 조상을 위해 올린다는 제례식을 꼽는다.

다만 제례는 본인이 죽은 뒤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그 자신이 이미 조상의 제례를 받들고 이로 인하여 자손과의 유대가 계승된다는 점에서 일생동안의 예절로 보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생각과 생활패턴이 변화하면서 집안의 소중한 전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 이 글에서는 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계란 제사일 3일 전부터 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요즘 간혹 상갓집에 조문을 할 때 며칠이 제사라 조문을 못 한다고 하는 말들을 간혹 듣는다.

음식은 깨끗하고 정갈하게 차려 지방을 모신다. 신이 강신하게 하는 의식이다.

애기가 태어나도 12띠가 있고 하는데 우리는 요즘 너무 쉽고 빠르게 변한다. 제사를 사정에 의해 모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제사를 모신다면 책을 보고 그 집안의 전통과 예법을 조금씩 익히는 것이 좋을 듯싶다.

제사상에 음식차림은 그 집안의 전통이요 대물림이다.

棗栗柿梨(조율시이) 紅東白西(홍동백서) 진설법을 배우고 익히고 해야 한다.

과실은 앞줄에 차리고 뒷줄에는 무엇을 차리고 모든 제물은 제자리에 책을 봐서라도 놓아야한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제사 예법은 어느 가문이나 비슷하며 세월이 변화하여 편한대로 변한 것이다. 요즘 가문의 전통과 제사문화를 무시한 요즘의 풍속이다. 술잔을 올릴 때는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3잔이 기본이다. 요즘은 너도 한잔 나도 한잔 하지만 나는 3잔을 권한다. 마지막 잔을 드리면 유식(侑食)이다.

즉 식사 시간이다. 유식(侑食)을 할 때는 엎드려 있는 집과 촛불을 내리고 밖으로 나가는 집이 있는데 꼭 살아있는 사람의 밥 6~7숟갈 먹을 수 있는 시간 정도 엎드려 있는 것과 밖에 나가는 것 둘 다 무방하다 생각이 된다.

두 가지가 왜 다르냐고 물어보면 노론 예법 풍속과 남인 예법 풍속이 그 차이란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시집이나 처가에 가면 가끔 이런 예를 볼 수 있다. 제사를 지낼 때 엎드려 있는 집과 촛불을 내리고 밖에 나가있는 집을 경험할 때도 있다.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탄탄한 꿈을 가질 수 없다.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전통풍속에 대한 넓고 확실한 상식을 갖지 못할 때 집단속에서 고립과 소외를 겪지 않을까 생각, 생각 또 생각하게 된다.

도서관에서 길을 찾다

● 김현조 / 평생학습과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저도 도서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생일 때는 공부방이 되어 주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문정보가 필요할 때나 육아에 대해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책을 대출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를 배우거나 다른 취미를 배울 수도 있었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크면 책놀이나 체험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도서관은 언제나 제 옆에 있었고 이용자로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구나 싶었던 저는 1년 반 동안 진주와 창원을 오가며 열심히 공부하여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였지만 이제는 사서로서 도서관의 일원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근무하게 된 도서관에서는 종합자료실에서 정보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자료실을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책은 생각보다 무겁고 이용자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창원도서관 평생학습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5개월 정도 근무해 보니 자료실과는 다른 사서의 업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창원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을 하듯이 학생들에게 맞는 강사님을 섭외해 찾아가는 독서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전시전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학교도서관 현장에 가서 DLS활용법이나 서가배열, 자료정리방법, 장서점검, 또 연수를 하기도 하고, 교과와 연계된 도서목록을 만들어 그 책을 책꾸러미로 대출해주고 학생들의 상황별 도서 목록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독서하는 모습을 찍은 손안애(愛)서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책얼굴 사진찍기 전시, 그리고 내가 책 속의 주인공이 된 듯 표지에 내 얼굴을 넣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입니다. 재미있고 신나는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도서관을 즐거운 곳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학교도서관지원 담당이라 그런지 학교도서관이 점점 활성화되어서 학생들이 거북목, 손목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원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학교도서관만이 아니라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서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도서관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서로서든 이용자로서든 도서관이 계속 있는 한 도서관에서 나만의 길을 찾고 싶습니다.

천천히 빠르게, 늘 배우며 성장하기

● 손도윤 / 문헌정보과 자료봉사

평범했던 고등학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을 뽑으라고 한다면 나는 다정했던 사서 선생님을 선택할 것이다. 항상 밝은 얼굴로 학생들을 맞이해주시고 가끔씩 흥미로운 주제의 도서나 궁금한 분야에 대한 참고자료를 안내해주시던 사서 선생님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학교도서관 사서선생님 같은 사서가 되고 싶었던 나는 문헌정보과에 입학하여 사서가 되기 위해 공부했다. 그러던 도중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독서 동아리에 흥미를 느껴 가입하게 되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책을 찾고, 우리가 읽어주는 책을 좋아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대학을 졸업하여 사서가 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책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서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책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서가 되기 위해 공공도서관 공고를 찾아보았다. 공고를 찾던 중 창원도서관 공고문을 찾게 되었고 창원도서관에 지원하였고 합격하였다. 나는 창원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창원도서관에 첫 출근하던 그날의 설렘과 기쁨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도서관에 들어온 새 도서를 정리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고, 자료를 대출하고, 다양한 참고자료들을 안내하고, 대출반납시스템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보았고, 처음으로 장서점검도 참여해 보았다. 모든 일들이 흥미롭고 매일 매일이 기대된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을 배우게 될까?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 일이 많이 미숙하고 실수도 많은 초보 사서이지만,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배우고 기억하여 더욱 다양한 사람들에게 능숙하게 봉사하는 사서가 되고 싶다. 2017년에는 나 자신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창원도서관은 더욱 번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멈춘 듯이 걷는 창원도서관

● 김은경 / 신규사서 실무과정 연습생

초등학생 때 책 냄새와 가지런하게 꽂힌 책들이 좋아서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숙제를 하고 집에 가곤 했다. 본격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중학생부터였다. 시골에서 자라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힘든 여건이었던 내게 책은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줬고, 한창 반항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내게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힘을 심어줬다. 책이 좋고 도서관이 좋았던 나는 문헌정보학과로 진학을 했고 대학시절 다양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실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약간은 시끌벅적한 생활 속의 도서관이 좋아 공공도서관 사서를 꿈꿨고 올해 그 꿈을 이뤘다.

늘 새로운 시작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창원도서관에 처음 실습을 가던 날은 수험생도 사서도 아닌 어중간한 신분에 여름도 가을도 아닌 어정쩡한 날씨까지 더해져 설렘보다는 싱숭생숭한 마음이 더 컸다. 하지만 도서관에 도착해서 사서선생님께 인사를 드릴 겸 도서관 견학을 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공시생활 중 공부하러 도서관에는 자주 갔지만 자료실이 아니라 학습실만 이용하느라 잠시 멀어졌던 책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이용자들을 보니 약간 설레기도 했다.

창원도서관은 교육청 소속도서관이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서관의 주요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나는 운이 좋게도 이번에 독서한마당 공모전 심사기간에 실습을 가게 돼서 특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지정된 책을 읽고 제출한 감상글과 그림을 지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도와드렸는데 똑같은 책을 읽고도 자기가 살아온 환경, 경험들에 따라 다르게 느끼고 작성한 글들과 그림을 보니 문득 나도 예전에 독서한마당에 참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중3때 국어선생님이 각반에 3권씩 책을 사주셔서 번호대로 돌아가면서 책을 읽고 원고지에 독후감을 썼었는데 예비사서가 돼서 경남독서한마당 행사를 다시 만나니 기분이 묘했다.

실습기간 동안 매일 여러 부서와 자료실을 돌아다니며 실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창원도서관 곳곳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사서선생님의 관심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별관들을 이어주는 통로에 있는 이용자 대상에 맞춘 도서 추천과 직접 작성하신 서평들, 다문화가정을 배려해 어린이실에 배치한 여러 나라의 도서 코너, 이용자교육을 위해 책을 읽어주고 다양한 활동을 위한 교구 제작 등 이용자들에게 최대한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섬세함이 느껴졌다.

겉에서 볼 때 도서관만큼 정적이고 조용한 기관이 있을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은 편하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분주하게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독서교육 전문가, 콘텐츠관리자, 문화프로그램 기획자 등 사서에게 변화되는 새로운 역할들을 소화해내시기 위해 노력중이셨다. 내가 실습기간 동안 본 창원도서관은 멈춘 듯이 걷는다는 말과 너무 잘 어울리는 곳이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어린 조언과 잘 할 수 있을까 계속 걱정을 하는 내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나중에 발령 받아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용기를 주신 사서선생님들께 부끄럽지만 이렇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능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지만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던 실습도 막상 시작하니 설렘이 점점 두려움을 눌렀던 것처럼 발령을 받으면 나도 선생님들처럼 좋은 사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다.

사서가 되고 싶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서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실습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 실습기간 동안 나는 어떤 사서가 될 것인지 물음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값진 경험이었다. 발령을 받아 일을 하면서 천천히 답을 찾고 그에 맞는 자질을 길러서 이용자들의 평생학습과 책읽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사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해돋이

2016년 제29집

인쇄일 : 2016년 12월
발행일 : 2016년 12월
발 행 : 창원도서관 문헌정보과(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03)
(055)278-2832
http://cwlib.gne.go.kr 〈비매품〉